

北韓의 文化語에 대한 연구*

李 承 旭

I. 文化語의 胎動

IV. 辭典編纂과 그 特徵

II. 北韓言語政策의 變轉過程

V. 結 語

III. 語彙整理와 단어 만들기

I. 文化語의 胎動

1. 3 교시와 5.14 교시

分斷後 北韓은 국어(혹은 韓國語)를 한동안 ‘조선어’라 別稱하며, 적어도 그러는 동안은 그 바탕에 깔린 국어인식의 規範은 南北共通의 傳統的인 ‘標準語’를 堅持하는 이른바 ‘民族語의 統一的 發展’이라는 路線標榜을 유지한다. 이것은 民族과 民族語의 名分에 있어 正當성이 보장되는 當爲論的인 命題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그들의 정치이념이나 言語觀에 비추어 볼 때, 그것은 잠정적으로 表面에 내건 修飾일 뿐, 다른 內面의 異質的인 목적이 숨겨진 것으로, 당초부터 二律背反의 모순을 內在시킨 것에 불과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표준어’ 정책은 당시의 현실이 처한 상황의 불가피한 여러가지 與件에 밀려 어쩔 수 없이 漂着한 한 時期동안의 過渡의 性格을 벗어날 수 없는 것이었으며, 어느 시기에 가서는 반드시 遁甲할 것이 예정된 것이었다. 다만 그 시기를 언제로 하느냐만이 留保된 상태에서,」 그것은 몇가지 단계에서 迂餘曲折을 겪으며, 마침내 1964년 1

* 本 研究은 1988年度 文敎部 共產圈研究支援金을 받아 西江大 東亞研究所에서 주관하여 이루어진 것임.

1) 그것은 비록 言語의 문제이지만 언어만의 독자적인 狀況만으로 그 時期가 선택될만큼 순수하지 않으며, 政治的인 統一路線과 같은 脈絡에서 政治적으로 제기되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월 3일의 김일성교시와 뒤이은 1966년 5월 14일의 교시²⁾라는 것이 그 시기를 예고하고 결정짓는 중요한 契機가 된다.

그들 스스로도 이 兩次에 걸친 김일성의 국어문제에 대한 직접적이고 적극적인 태도표명은, 이른바 '어학혁명의 강령적 교시'로 규정하고 있지만, 그 후 北韓의 언어정책의 基本路線이 표면적으로나마 留保되어 오던 傳統的 標準語로부터 완전히 離脫하여 그들의 規範語라고하는 별도의 '文化語'를 目的意圖의으로 만들고 普及할 뿐만 아니라 국어생활을 統制하는 一大變革의 새로운 局面을 指向하고 전개되었던 것만 보아서도, 그것이 어떠한 것이었나는 알만하다. 특히 5.14 교시으로써 이것은 움직일 수 없는 既定事實로 烙印이 찍히는데 그로부터 文化語時期로 넘어가는 것이니, 이것을 앞선 시기의 標準語政策에 대하여 文化語政策이라 부르기로 한다.

결국 1.3 교시는 문화어정책의 예고였으며, 5.14 교시는 이것의 宣言이었던 것이다. 그러므로 이 문화어정책의 基本性格을 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들 교시를 면밀히 검토해야 함은 물론이로되, 겉에 나타난 名分에 못지 않게 그 裏面에 가려진 또하나의 眞意까지도 읽어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그것은 비단 언어문제 뿐만 아니라 모든 部門의 政策이 그러하듯이 政治的 目的을 이루기 위한 道具的 手段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文化語가 表面化되는 데에는 필연적으로 政治적인 動機가 작용한다는 것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 따라서 그것을 전후하는 時期에 北韓이 政治적으로 어떠한 變身을 하는가 하는 문제와 文化語政策으로의 轉移는 같은 脈絡에 있는 것이 되므로 그 背景을 살피는 일은 곧 文化語의 성격을 바르게 파악하는 要諦라 할 수 있다.

2. 政治理念의 變質과 文化語

北韓에서의 官製이데올로기 정비과정을 申一澈교수는 6 단계로 구분하

2) 이들에 대하여는 뒤에서 구체적으로 검토가 될 것이다. 이들은 이하에서 각각 '1.3 교시'와 '5.14 교시'로 略稱한다.

고 그 가운데서 1960년대초를 제 3 단계인 '金日成思想준비기'라 했고, 제 4 단계, 즉 1966년부터 1970년까지의 時期를 '主體哲學의 체계화시기'라고 했는데³⁾, 바로 이 時期가 1.3 교시, 5.14 교시가 나오고 언어정책의 轉換이 일어나는 時期가 된다.

北韓은 스탈린格下運動이 심화되던 1955년경부터 獨自의인 이데올로기의 필요성이 提起되고, 中·蘇紛爭의 와중에서 더 이상 그들의 어느 쪽을 선택적으로 受容할 수 없게 된 1966년경부터는 본격적으로 그들의 이데올로기를 정립해 나가며, 그리하여 1970년대초에 이르러 '主體哲學'이라는 독자적 이데올로기를 체계화하기에 이른다. 따라서 北韓全體主義의 性格은 1960년대 중반까지의 스탈린式 社會主義全體主義와 그 이후의 金日成主體思想에 기초하는 1人獨裁型全體主義로 크게 나누어진다.⁴⁾

北韓의 국어연구나 언어정책이 언제나 大前提로 내세워온 理念의 標榜

3) 申一澈: 「북한주체철학의 비판적 분석」 사회발전연구소, 서울, 1987. pp. 23~24.

4) 李相禹교수는 北韓政權당국이 '새시대', 즉 마르크스·레닌主義의 全體主義에서 金日成主體思想의 全體主義로 轉移해온 과정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 있다.

1955년 12월 28일 김일성연설 "사상사업에서 교조주의와 형식주의를 퇴치하고 주체를 확립할 때 대하여"에서 처음으로 主體確立 필요성 강조

1966년 8월 12일 노동신문 사설 "자주성을 옹호하자"에서 최초로 주체의 필요성을 공식선포

1970년 11월 조선로동당 제 5차전당대회에서 채택한 개정당규약 전문에서 "조선로동당은 마르크스·레닌주의와 우리나라 현실에 마르크스·레닌주의를 창조적으로 적용한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주체사상을 자기활동의 지도적 지침으로 삼는다"고 규정, 최초로 주체사상을 마르크스·레닌주의와 同格으로 내세움.

1978년 12월 27일 개정헌법 제 4조에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은 마르크스·레닌주의를 우리나라의 현실에 창조적으로 적용한 조선로동당의 주체 사상을 자기활동의 지도적 지침으로 삼는다"고 규정, 본래의 마르크스·레닌주의를 지배이데올로기에서 제외

1980년 10월 13일 조선로동당 제 6차전당대회에서 개정된 당규약 전문에서 "조선로동당은 오직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주체사상, 혁명사상에 의해 지도된다."고 밝힘으로써 마르크스·레닌주의에서 완전독립

李相禹: "金日成體制的 神政의 特性" 「東亞研究」 第15輯, 西江大東亞研究所 1988, pp. 7~8.

이 어떠한 단계를 거치며 달라졌는지의 문제는 결국 위에서 舉論한 이해
올로기의 變質過程에 따라 진행되었을 것은 의문의 여지가 없는 일이나,
여기서는 그것이 어떻게 다른 徵候를 보이면서 조금씩 趨移했던가에 대하
여 資料를 기초로 하여 追跡하는 것으로 그 한 국면을 확인해 보기로 한다.

分斷後 그들은 마르크스-레닌主義의 理念體系에 의해 무제한하게 支配
되며, 그것은 언어문제에 있어서도 例外가 될 수는 없다. 그러한 상황은
일일이 예를 들어 밝힐 필요도 없이 일반화된 일이나, 가령 다음과 같은
자료에서는 그들의 典型이 이루어지는 初期的 動態를 드러내 보이는 한
경우로서 눈길을 끈다. 리극로는 “1950 년을 맞이하면서”라는 글에서 ‘어
문의 질적 개조를 위한 연구사업’을 강조하면서, ‘그러기 위해서는…우리
들의 사상을 진정한 맑스-레닌주의적 세계관으로 무장하고 정치적 의식을
제고시킴으로써 언어에 관한 맑스-레닌주의의 기본명제에 의거한 새로운
언어이론에 립각하여 조선어문을 연구하여야 한다’고 하였으며, 이어 ‘예
리한 비판사업들을 강화함으로써 형식주의, 무사상성, 물질치성과 철저하
고도 용서없는 투쟁을 전개하여야 한다’⁵⁾고 그가 이끄는 ‘조선어문연구회’
의 당면한 과업을 제기하고 있다. 이렇게 提高된 ‘맑스-레닌주의의 기본
명제에 의거한 새로운 언어이론’이라는 명에는 1960 년 前半까지도 늦추
어질 것 같은 기미는 보이지 않는다. 그것은 論說이나 論文에 一貫되게
주장될 뿐만 아니라 언어의 인민성이니 문화성이니 하면서 所謂 언어의 정
화와 文風을 바로 잡는 사업으로 밀어 붙인다. 1961 년의 論說 “제 3 차 당

5) 리극로, “1950 년을 맞이면서” 「조선어연구」 제 2 권 1 호(1960-2) pp. 2~7.

이와 같은 문제제기가 있게 된 데에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 ‘조선어문연구
회’의 機關誌「조선어연구」가 1949 년 4 월에 창간호를 발간하여 얼마 되지 않
은 11 월 19 일에 ‘조선어연구독자회’라는 集會가 있었는데, 여기에서 ‘조선
어문연구회’의 학문적 성향에 대한 辛棘한 批判이 集中討論된다. 대체로 그
것은 ‘무사상적인 논문들이 있었다’, ‘새로운 언어건설분야에 있어서 사상적
무기로 되어 있지 못하고 있다’, ‘앞으로는 맑스-레닌주의에 립각하여 다면
적으로 연구된 논문들이 많이 실릴 것’ 등으로 논박되고 있다. 리극로가 ‘조
선어문연구회’의 위원장으로 국어연구의 기본요강을 서둘러 밝히게 된 것은
전적으로 이러한 정치사상적 배경에 밀리게 된 결과임이 분명하다. 「조선어
연구」 제 2 권 1 호(1950-2) pp. 79~83.

대회 이 후 우리당 언어정책의 승리”⁶⁾만 보더라도 ‘...우리나라에서 력사상 처음으로 맑스-레닌주의에 립각하여 조선어의 전반적 어휘분야를 포괄하는 「조선말사전」 첫권이 8.15 해방 15주년을 계기로 출판되었으며, 둘째권과 셋째권도 영광스러운 우리당 제4차대회 선물로 출판하게 되었다’라든가, “민족어의 개화발전을 위한 조선로동당의 현명한 정책”⁷⁾에서 ‘김일성 동지는 일찌기 항일무장투쟁시기에 민족의 중요표식으로서의 조선어에 대한 맑스-레닌주의적 립장으로부터 출발하여 민족해방을 달성함으로써만 조선어를 일제의 야만적인 말살정책으로부터 고수해낼 수 있다는 것을 전체조선인민에게 가르쳐 주셨다’라 하는 것, 또는 김병제의 “학자들의 새해 결의”,⁸⁾ 즉 ‘...또 언어학분야에서 맑스-레닌주의 순결성을 고수하기 위하여 민족어문제에 대한 논문도 하나 쓰겠다’라는 것등 常套性을 띠게 되는 당시의 상황이 잘 나타난다.

그런데 1964년을 전후하는 시기에 이르면서 차츰 쇠워졌던 마르크스-레닌주의 언어이론의 굴레에 금이 가는 조짐이 보인다. 가령 다음과 같은 文脈도 그러한 側面에서 이해된다. ‘이 중대한 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우선 우리당의 사상체제를 철저히 무장해야 하며 언어에 대한 맑스-레닌주의 고전, 특히는 김일성동지의 교시에 포함되어 있는 언어현상에 대한 심오한 리론을 철저히 연구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우리 언어학자들은 조선의 언어과학을 가까운 장래에 세계적 수준에 도달시키기 위하여 앞으로도 조선어와 일반언어학의 리론연구사업을 계속 강화해야 하며, 주체적인 립장에 튼튼히 서서 과학의 당성을 높이며, 온갖 부르조아적 및 수정주의적 견해를 제때에 폭로 분쇄하고 맑스-레닌주의적 언어리론과 방법들을 고수해야 한다.’⁹⁾ 물론 이보다 훨씬 앞선 시기부터 민족의 ‘주체성확립’의 문제와 마르크스-레닌주의 사이의 갈등을 알리는 徵候가

6) 「말과 글」 1961년 9호, p.3.

7) 「말과 글」 1962년 4호, p.1.

8) 「조선어학」 1964년 4호, p.26.

9) “조선언어학자들의 당면과업” 「조선어학」 1964년 4호, p.4.

다음과 같은 논설에 이미 나타난다. ‘과학연구사업에서 주체를 확립할 데 대한 당과 수령의 현명한 지도는 조선어학 발전에서도 획기적인 의미를 가진다. 조선혁명의 전지에서 우리의 실정에 맞는 조선어연구를 진행한다는 근본적인 우리의 관점이 확고히 섬으로하여 우리는 조선어학을 옳은 방향으로 건설할 수 있었다.’¹⁰⁾

그러나 이 단계만 해도 ‘주체를 확립할 데 대한’ 謀索이며, ‘우리의 실정에 맞는 조선어연구’의 實驗的 準備段階라 할 수 있고 역시 1.3 교시로서 ‘당의 사상체제로 철저히 무장’할 것을 促求하면서 마르크스-레닌주의를 古典으로 밀어내는 한편, ‘주체적인 립장에 튼튼히 서서 과학의 당성을 높일’ 것을 천명하고 나선다. 그렇지만 김일성의 주체적인 언어이론과 마르크스-레닌주의 언어이론이라는 것의 位相設定의 문제와 함께 이 두 이론이 겹치는 모순을 合理化하는 데 苦心하는 흔적을 ‘맑스-레닌주의적 언어이론과 방법들을 고수해야 한다’는 式으로 折衷하고 있는 文脈에서도 엿볼 수 있다. 그러나 1.3 교시를 한 고비로 하여 그들의 理念的 갈등은 일단 정리된다고 볼 수 있는데, 그것은 다음과 같이 주체사상과 마르크스-레닌주의를 援木하는 형식으로 앞선 시기와의 連繫를 피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즉, 그것은 1.3 교시 이후 그들이 慣用하게 되는 ‘맑스-레닌주의적 이론의 창조적 적용’이라는 새로운 標榜이다. ‘수상동지의 교시는 언어부문에서 주체성의 구현이며, 언어에 관한 맑스-레닌주의적 이론의 창조적 적용으로서 이론-실천적으로 커다란 의의를 가집니다.’¹¹⁾ 한편 1964년 초의 일부논설에서는 여전히 ‘맑스-레닌주의의 순결성을 고수’¹²⁾라든가, ‘맑

10) “조선로동당의 평도말에 우리 조선어학은 힘차게 전진한다” 「조선어학」 1962년 4호, p. 1.

11) “훈민정음을 만든 520주년기념보고” 「조선어학」 1964년 2호, p. 6

12) 김변제: “학자들의 새해 결의” 「조선어학」 1964년 2호, p. 26.

같은 題下의 글에서 홍기문은 이와 엇갈리는 ‘주체성있는 조선어학’을 내세우고 있어 당혹케 하며, 이런 엇갈림이 당시의 交替期的 狀況이 암시적으로 表出된 한 例가 되지 않을까 한다. 즉 그는 “...뿐만 아니라 주체성 있는 과학을 세워야 하며 더구나 주체성 있는 조선어학을 세워야 할 과업도 제기되고 있다.”라 했다.

스-레닌주의적 언어이론과 방법들을 고수' ¹³⁾ 라는 등의 경향이 없는 바도 아니나, 그것은 조만간 褪色한다. 그리하여 그것은 점차 다음과 같은 것으로 定着해 간다. '우리 당은 맑스-레닌주의를 조선혁명의 구체적 실정에 창조적으로 적용하여 거대한 승리를 달성하여 왔다.' ¹⁴⁾ '김일성동지는 1월 3일교시에서 언어에 관한 맑스-레닌주의이론을 더욱더 구체화하면서 조선어의 발전과 관련된 모든 문제에서 지침으로 삼아야 할 제반 원칙들을 과학적으로 천명하시였으며, 조선어의 주체적 발달방향을 명확히 제시하시였다.' ¹⁵⁾ '우리의 언어적 실정에 맞게 맑스-레닌주의를 창조적으로 적용한 우리당 언어정책에 대하여 이론적으로 깊이 리해함이 없이는 우리들이 이를 정확히 진행할 수 없다.' ¹⁶⁾ '우리당 언어정책, 김일성동지의 언어사상의 창조성을 깊이 인식하고 파악했을 때 우리는 해결하지 못할 것이란 없다. 김일성 동지의 언어사상은 우리 혁명의 실천적 요구와 우리 시대의 민족어의 발달과정을 가장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총화한 독창적인 견해로서 맑스-레닌주의 보물고에 새로 기여하고 있다. ...먼저 김일성동지의 언어사상의 창조성을 이론적으로 론증하여 놓아야 한다. 레닌대 민족과 민족어, 언어와 문화, 문자의 사회적 기능, 민족어의 주체성있는 발달방향과 방도에 관한 사상의 독창성, 사회주의 시기의 민족어의 규범화, 말과 글에서의 균중관점의 발현문제 등에 관한 언어사상을 들 수 있는 바, 이것들을 심도있게 론증하고 전개하는 일은 우리 언어과학 앞에 제기되는 가장 중요한 과업의 하나이다.' ¹⁷⁾

대체로 이들에게서 導出되는 論旨은 마르크스-레닌주의의 언어이론으로 민족어의 주체성 있는 발달방향과 방도가 설 수 없고, 그러기 위해서

13) "조선언어학자들의 당면과업" 「조선어학」 1964년 4호, p. 4.

14) "우리당의 언어정책과 조선어의 발달" 「조선어학」 1965년 4호, p. 3.

15) 上揭論文, p. 6.

16) "조선어를 더욱더 발달시키기 위한 우리 언어학자들의 당면과제" 「어문연구」 1966년 3호, p. 1.

17) "언어학분야에서 당 정책과 혁명전통을 더욱 깊이 연구하자" 「어문연구」 1967년 3호 p. 2.

는 마르크스-레닌주의를 창조적으로 적용해야 하는데, 그 指針을 김일성이 1.3 교시로 밝혔다는 것이고, 그것은 곧 국어의 주체적 발달방향을 제시한 것이라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김일성이 민족어의 주체성 있는 발달 방향과 방도를 明示한 독창적 언어사상이라는 것이며, 그들이 의례이 '독창적'이니 '창조적'이니 하는 冠頭語를 붙이는 것은 매우 중요한 뜻을 縮約으로 示唆한다 하겠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시기에 마르크스-레닌주의와의 決然한 斷切까지는 할 수 없는 상황이고, 그렇다고 김일성의 주체적 언어사상을 그 亞流로 格下할 수는 더욱 없기 때문에 그 確실한 位相을 定立하지 못한 데서 考案된 米봉적 表出이었다고 보인다. 이러한 결립들을 克服하기 위하여 그들은 '무엇보다 먼저 김일성동지의 언어사상의 창조성을 이론적으로 論證'하여 놓아야 한다고 促求했던 것이다.

그러나 5.14 교시 이후의 상황은 사상적인 不透明性에서 벗어나 주체의 기초 위에 전개되는 김일성의 언어이론에 입각한 일련의 變革으로 이어진다. 그들은 1.3 교시와 5.14 교시를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1964년 1월 3일교시, 1966년 5월 14일교시, 그리고 언어분야에 주신 여러 교시는 조선어와 조선어학을 주체성있게 발달시킴에 있어서 거대한 역사적 의의와 이론-실천적의의를 가진다.'¹⁸⁾ 그리하여 '김일성동지께서는...맑스-레닌주의 언어이론을 새롭게 발전시키시었다'¹⁹⁾라든가, '이 교시는...맑스-레닌주의 언어이론을 더 한층 발전시키고 풍부화시킨 고전적인 문헌입니다.'²⁰⁾라는 式으로 주체사상의 位相을 적어도 마르크스-레닌주의의 階梯에까지 끌어 올리는 背景을 構築한다. 北韓의 文化語는 바로 이러한 政治理念이 轉換하는 時代의 產物이었다.

18) "언어분야에서 당 정책과 혁명전통을 더욱 깊이 연구하자" 「어문연구」 1967년 3호, p.1.

19) "김일성동지의 주체적인 언어사상은 조선어발전을 위한 강령적 지침이다" 「문화어학습」 1969년 1호, p.1.

20) 김병제: "1964년 1월 3일 교시를 받들고 수상님께서 밝혀주신 길을 따라" 「문화어학습」 1969년 1호, p.24.

II. 北韓 言語政策의 變轉過程

‘文化語’가 北韓의 言語政策의 기본대상으로 등장하는 것은 분단후 20년이 지난 시기다. 그동안 그들의 정책이 어떠한 課題를 어떻게 推進해 왔으며 어떠한 成果를 거두었는지를 알아 본다는 것은 그것만으로도 有益한 일이 될 뿐만 아니라 文化語를 바르게 이해하는 데도 짚어 봐야 할 일이다.

이 기간 동안 그들이 計劃하고 추진한 언어정책은 단계적으로 보아, 1) 文盲退治, 2) 漢字使用폐지, 3) 規範化와 文風改善을 위한 일이었다.

光復後 교육문화부문이 直面한 첫 과업으로 새로운 교육제도를 세우는 일과 함께 文盲退治가 시급한 문제로 제기되었던 것은 南과 北이 같은 실정이었다. 당시 北韓의 文盲率은 人口의 $\frac{1}{4}$, 250餘萬名이 成人文盲이었는데 1946년 11월에 ‘북조선림시인민위원회’는 ‘문맹퇴치를 전인민적 운동으로 전개하기 위한 결정’이라는 것을 채택하여 2期로 나누어 실시한다. 즉, 1期는 1946년 12월~1947년 3월로서 주로 한글학교를 통하여 49만 2천명, 그리고 2期(1947년 4월~12월)는 성인학교²¹⁾를 통하여 92만 9천명의 文盲이 퇴치된 것으로 보고되어 있으며, 1949년 초까지는 완전히 퇴치되었다고 하였다.²²⁾

21) 1947년 4월에 ‘북조선성인교육 및 직장 교육체계에 관한 결정서’가 나오며 그것에 따라 성인교육망이 구성된다.

한글학교(4개월과정) : 성인학교(2년과정) : 성인중학교(3년과정).

「조선로동당의 지도밑에 개화발달한 우리 민족어」 과학원 언어문학연구소 언어학연구실, 과학원출판사, 1962, p.135.

22) 上揭書, p.136.

이와같은 통계자료의 信憑性에는 역시 문제가 있다. 가령 이에 대한 다음과 같은 기술도 있다. ‘...불과 3~4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230여만이나 되었던 문맹을 기본적으로 퇴치하는 빛나는 성과를 거두었다’ “우리 당의 언어정책과 조선어의 발달” 「조선어학」 1965년 4호, p.3.

“김일성 : 문맹퇴치사업에서 달성한 성과를 더욱 공고 발전시키자—중앙문맹퇴치전담관 일군들과 한 대화 1948년 5월 22일” 「문화어학습」 1980년 2호, pp.3~5.

다음 1949년에는 모든 출판물에서 漢字使用을 완전히 폐지했으며, 그것은 '획기적인 사변이었다'²³⁾고 했다. 이것은 文盲退治에서 거둔 成果의 實効를 얻기 위해 連繫的으로 추진한 사업이지만, 그들의 말대로 일시에 한자사용을 완전폐지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니다.²⁴⁾ 그리고 이 사업은 그것으로 끝나는 일도 아니었으니, 불가불 이것과 並行하여 진행해야 할 일이 있었다. 그것은 한자폐지에 따라 語彙構成에 肯定的인 변화도 없지는 않으나, 漢字語가 일단 그것을 이루고 있는 漢字를 떠나서 바로 그 단어를 단위로 하여 쓰일 때는 점차로 원래의 발음에서 벗어나는 변화를 입는 수가 많다는가, 漢字的 語源이 망각됨으로써 빚게 되는 意味傳達의 混亂등 否定的인 現象이 예상되며, 특히 '漢字語生産의 物質的 根源을 청산'하는 문제는 새로운 造語能力이나 手法을 가로막는 심각한 장애요인이 되기 때문에 그것의 波紋은 의외로 언어의 안팎으로 擴大되며, 국어의 語彙構成體系의 一大變革을 예고하고도 남는다. 이밖에도 北韓의 특수한 정치, 경제, 문화의 기반형성은 既往의 語彙構成을 정비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며, 語彙交替現象과 함께 말과 글에서 이른바 '비인민적 요소'를 속아 버리는 言語淨化나 文風確立의 課題와 한데 複合的으로 맞물리어 '낡은 사상잔재

23) "우리 당의 언어정책과 조선어의 발달" 「조선어학」 1965년 4호, p. 3.

24) 가령 '조선어문연구회'의 기관지 「조선어연구」(1949~1950)만 보더라도 여전히 國漢文混用이며, 「말과 글」誌(1958)에 이르면 한글 전용이다. 漢字폐지는 그 자체의 문제보다도 그로 인해 일어나는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에 急進的인 변화는 많은 副作用과 混亂을 수반한다. 따라서 그들은 이 時點에서 原則을 세운 것으로 이해되며, 그것은 우선 교육분야에서 실천에 옮겨지고 점차 확대시켜 전면적 폐지로 이르게 한다는 정책이었던 것 같다. 「조선로동당의 지도밑에 개화발달한 우리 민족어」 과학원 언어문학연구소 언어학연구실, 과학원출판사, 1962, p. 139.

그들의 한자폐지의 標本的 模型으로 당중앙위원회 기관지 「로동신문」의 경우를 보기로 한다. 創刊 당시는 國漢文混用, 1947년 중반부터 3면만 純國文, 1948년부터 국제정세, 국내소식 및 특수한 이론선전은설을 제외한 모든 기사를 제목에서 내용에 이르기까지 모두 純國文, 1949년 초부터는 漢字를 완전히 쓰지 않게 하였지만, 역시 그 이후에도 한동안은 교전물과 과학서적등은 부분적으로 한자를 섞어 썼다. 한정식: "서사표기의 인민성 제고에서 거둔 성과—한자를 중심으로" 「말과글」 1961년 10호, pp. 5~10.

를 극복하기 위한 투쟁'²⁵⁾으로 새로운 '말다듬기운동'을 밀고 나가게 된다.

한편 뒤흔들려 갈피를 잡기 어려워진 국어현실을 그들에게 유리하게 이용하기 위한 의식적 과업으로 국어의 規範化를 서둔다. 그것은 과학원 언어문학연구소의 주관하에 이루어지며, 그 시기만 하더라도 '우리나라에서 언어의 규범화사업은 많은 경우에 서울을 중심으로 하는 중부방언에 기초'²⁶⁾로 한다는 원칙을 밑바닥에 깔고 표준어규범²⁷⁾, 다시 말해서 표준발음법과 철자법의 규범, 어휘-의미론적 규범, 문법적 규범등 실천적 의미를 갖는 통일적인 언어규범을 확립하는 정책을 추진했다.

단어와 그 의미(語彙)分野에서의 規範化

규범화 가운데 語彙分野의 것은 다음 시기에 전개되는 文化語를 形成하는 前段階의 意味를 가진 일이기 때문에 다른 분야의 문제보다는 細部的으로 검토해 볼 이유가 있다. 그들은 국어의 규범화에 대하여 서울중심의 중부방언을 기초로 하되 基礎方言에만 의지하려는 협소한 경향을 극복하는 노력이 있어야 하며, 그러기 위하여 여러가지 언어적 變種들, 동요하는 현상들 중 언어발달의 합법칙성, 그 경향성을 반영하고 있는 가장 典型的인 것, 대중의 언어의식에 친숙, 그들의 요구에 부합되는 것, 다시 말해서 '인민성원칙'²⁸⁾이라는 것으로 基準을 삼는다고 하였다.²⁹⁾ 그리하

25) "우리당의 언어정책과 조선어의 발달" 「조선어학」 1965년 4호, p. 6

26) 「조선로동당의 지도밑에 개화발달한 우리민족어」 p. 148.

27) '표준어'라는 用語에 格別히 주목할 이유가 있다. 이것만으로도 당시의 언어정책의 路線이나 국어인식의 기반을 表出하는 의미를 지니기 때문이다. 이 용어가 사용되는 기간은 국어의 모든 規範의 기초가 서울을 중심으로 하는 중부방언에 놓이나, 이것이 '문화어'로 바뀌면서부터 그것은 별도의 言語圈을 의도적으로 형성시켜 국어의 分斷現象을 深化시킨다. 물론 그 시기에 이르면 '표준어'란 말은 廢語化된다.

28) 이것은 김일성이 1946년 5월에 '북조선 각도 인민위원회 전당사회단체 선전원, 문화인 예술인 대회'에서 말한 다음과 같은 내용에 기초한다. '내가 오늘 여러 동지들에게 요구하고 싶은 것은 동무들이 대중을 찾아가 그들 속에 들어가서 대중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이야기하며, 대중이 원하는 글을 써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 대중을 위하여 일하며, 대중의 심리를 잘 알고, 대중의 말로 말하며, 대중이 요구하는 글을 쓰며 대중을 가르칠 뿐만 아니라 대중에게서 배울 줄 아는 사람이라야만 진정한 문화인, 대중의 문화인, 민족주

여 既往의 語彙構成속에 있는 否定的인 요소들을 제거하여 우리말을 純潔하게 하고 아름답게 하는 言語淨化事業과 有機的으로 연관된 사업으로 전개시킨다는 것이고, 그 주요 대상으로, 1) 봉건잔재와 관련된 漢字語彙, 2) 日本式漢字語 또는 日本語, 3) 알기 쉬운 말로 바꿔 놓을 수 있는 漢字語 또는 外來語彙등을 제시하며, 이들을 국어의 語彙構成에서 追放하면서 그대신 '인민성원칙'에 부합하는 말로 交替普及한다는 것이다. 그 과정에서 이미 固有語처럼 굳어졌거나, 활발히 새로운 단어를 파생시키고 있는 語彙는 유지하며, 고유요소로 된 것이라도 어색하고 인공적인 느낌을 주는 것, 지나치게 古語나 方言의 色彩가 농후한 것은 排除하는 한편 語彙處理上의 문제가 아니라 관료주의적인 作風이나, 대중을 外面하는 觀點을 배격한다는 것이다.

이 時期에 벌어진 語彙分野에서의 規範化에 대한 政策立案이나 추진은 사회과학원 언어문학연구소가 주도하며, 그 解說이나 弘報, 그리고 보급 침투하는 일은 연구소 機關誌의 하나인 「말과 글」을 통하여 매우 투쟁적으로 밀어부치고 있다.

일반어휘를 交替整理하는 문제 못지않게 이 분야에서 큰 比重을 차지하는 것이 광범위한 '학술용어'의 문제다. 規範化의 기준으로 내세운 指針대로 한다면 대부분의 학술용어는 새로 造語되어야 할 대상이 된다. 그들은 1949년 2월에 '학술용어사정위원회'를 조직하나, 1961년 11월 25일 내각결정으로 학술용어사정위원회에 관한 규정이 채택됨으로써 그 위원회가 강화된다. 그리하여 일이 본격적인 궤도에 들어서게 되며 산하에 40여 개의 분과위원회를 두고 부문별 학술용어초안을 작성하여 광범한 심의와 검토를 거쳐 그 통일안을 발표한다. 이 과정에서 초기에는 학술용어의 본질에 대하여 많은 異見이 노출되는데, 그것은 주로 학술용어의 特殊性에 비추어 일반어휘와는 달라야 하며, 따라서 漢字語나, 外來語의 借用은 불가

의적 문화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당의 언어정책과 조선어의 발달" 「조선어학」 1965년 4호, p. 6.

29) 「조선로동당의 지도밑에 개화발달한 민족어」, p. 150.

피하다는 것과, 固有語나 쉬운 漢字語만으로 학술용어를 만들면 과학의 卑俗化를 가져올 우려가 있다는 것 등이었다. 그들이 지적하고 있는 초기 단계의 과오를 보면, ㄱ) 학술용어들이 인민의 언어를 도입하지 않았으며 고유조선어휘가 학술용어로서 사용되지 않은 점, ㄴ) 한자어휘를 인민대중의 이해여하에는 관계없이 람용한 점, ㄷ) 대중의 언어생활과 떠난 외래어휘를 람용하여 우리말로 번역할 수 있는 것도 번역하여 쓰지 않은 점³⁰⁾ 등이라는 것이다. 그리하여 사정된 용어까지도 再査定하는 사태에 이르며, 여기에는 부문별 전문학자 이외에 언어학자들이 참가하여 '과학성과 체계성을 지니면서도 인민성이 풍부하게 하는 방향'에서 지난날의 결함을 대담하게 시정했다는 것이다.

단어와 그 意味分野에서의 規範化문제에서 가장 핵심적인 일은 辭典編纂이다. 그것은 사전이 어휘를 정리하고 어휘체계로 확정된 결과를 반영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굳히는 일이 되기 때문이다.

1948년 「조선말사전」을 발간할 것에 대한 내각결정이 채택되어 당시 조선어문연구회가 주관하여 편찬을 끝마치고 인쇄에 붙여지나, 6.25 사변으로 중단되었고, 그 후 과학원 언어문학연구소 사전연구실에서 1956년 「조선어소사전」(語彙數 4만여)을 발간하게 된 것이 첫 성과이며, 이어 1960년부터 1962년에 걸쳐 「조선말사전」(全 6卷)(語彙數 약 17만)을 발간하게 된다.³¹⁾ 특히 여기서 주의를 환기해 둘 일은 이들 사전이 지닌 史的인 特性을 확인하는 일이다.³²⁾ 그것은 다음 시기에 편찬 발간되는 사전을 역사적으로 파악하고 변화의 성격을 이해하는 데 이들의 對比가 要緊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 가운데 한두 가지만 지적한다면, 첫째, 이 사전들은 註釋辭典으로서의 認識・敎養의 機能을 가진 參考辭典이라는 것과, 둘째, 이들은 語彙構成반영의 기능에 있어 각기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데, 즉 국어라는 용어를 「조선어소사전」은 '현대, 표준어'로, 「조선말사전」은 '과거

30) 上揭書, p. 155.

31) 李承旭: 「北韓의 國語研究와 言語政策」 「東亞研究」 第14輯, 1988, p. 60.

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의 국어의 총체'를 대상으로 삼고 있는 것이 그것이다. 이 두 가지 特性은 앞으로 언어정책과 사전편찬의 路線이 批判되고 論難되는 중요한 爭點이 된다.

標準語와 文化語

5.14 교시는 북한의 국어문제에 있어서 '표준어' 시대가 끝나고, '문화어' 시대의 문을 여는 결정적인 轉換動機가 된다. 分斷後 20년을 지내는 과정에서 크게는 1958년 3월에 있는 金料奉의 肅清과 같은 사건을 비롯하여 많은 우여곡절을 겪지만³²⁾ 그 때까지만 해도 '표준어'의 傳統性을 저버리지 않는다. 물론 이것은 단순한 언어학적 개념으로서의 '표준어', 또는 '문화어'의 용어교체를 뜻하는 것은 아니다. 앞에서도 지적했듯이(註 27), 그들이 좋은 싫든 規範의인 基準語로서 '표준어', 즉 '서울을 중심으로 하는 중부방언'을 써 왔던 것은 言語問題를 훨씬 넘어서는 그 이상의 뜻을 가지는 문제이기 때문에 다른 視角에서 이것을 注視할 이유가 있다.

1.3 교시와 5.14 교시는 2년도 채 되지 않은 사이에 거듭하여 담화형식으로 발표되는데, 얼핏 보기에는 크게 달라진 것이 없을 뿐만 아니라, 같은 脈絡의 主題를 한층 구체적으로 전개한 데 지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나, 사실은 국어의 밑뿌리를 뒤흔들어 놓는, 가히 혁명적이라고 할 변화가 담겨진 宣言이다.

1.3 교시만 하더라도 우리 민족과 국어, 그리고 표준어를 잇는 論理에

32) 필자는 이들 사건에 반영된 여러가지 특징에 대해 비교적 자세히 살펴 밝힌 바 있다. 上揭論文, pp. 60~62.

33) 김두봉의 숙청에 대하여는 李承旭 上揭論文 pp. 62~63을 참고할 것이며, 다음의 論說도 그 분위기를 짐작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선전선동사업에서 교조주의와 형식주의를 극복하는 투쟁은 사상사업에서 주체를 확립하기 위한 전반사업과 유기적 통일속에서 심각한 사상투쟁으로 진행되었다. ... 또는 비과학적 문자 체계를 조선인민의 서사생활에 강요하는 등 종파분자들의 반인민적 책동을 제때에 폭로분쇄하였다.' "우리당의 언어정책과 조선어의 발달" 「조선어학」 1965년 4호, p. 6.

서 金料奉의 文字改革論을 猛駁하여, 민족을 갈라놓는 그 어떠한 문자개혁도 절대로 허용할 수 없으며, 문자개혁을 하더라도 남북이 통일된 다음에 우리의 과학기술이 세계적 수준에 오른 다음에 해야 한다고 강조할 뿐만 아니라 '이와같은 것들은 문자 개혁에서 뿐만 아니라 우리 언어발전과 관련된 모든 문제에서 우리가 지침으로 삼아야 할 원칙입니다.'³⁴⁾라고 闡明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어지는 뒷 부분에서 前後가 撞着하는 주장이 있어 당혹케 한다. 그것은 국어의 중요한 기본적인 문제를 남북이 통일될 때까지 留保한다고 한 앞의 말과 그 發想의 기반이 다른, 다음의 주장이 그러하다. '우리말을 발전시키는 데 있어서 어떤 다른 말을 본받아도 안되며, 또 영어나 일본말이 많이 섞여든 서울말을 표준으로 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어디까지나 우리나라의 고유한 말을 기본으로 하고, 사회주의를 건설하고 있는 우리가 중심이 되어 조선말을 발전시켜야 합니다'.

5.14 교시에서의 變身을 결과로 놓고 볼 때, 이 주장의 文脈에 숨어 있는 眞意가 무엇이었던가를 충분히 推理할 수 있다. 결국 문화어의 출현에 대한 결정은 1.3 교시 혹은 그 이전에 이미 내려진 상태이고, 다만 그것을 斷行하는 시기만을 정치적으로 미루고 있었던 것이다. 마침내 5.14 교시는 북한의 規範語에 대하여 그 동안 留保해 온 결론을 다음과 같이 내린다.

'우리말을 발전시키기 위하여서는 터를 잘 닦아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혁명의 참모부가 있는 정치, 경제, 문화, 군사의 모든 방면에 걸치는 우리 혁명의 전반적 전략과 전술이 세워지는 혁명의 수도이며 요람지인 평양을 중심지로 하고, 평양말을 기준으로 하여 언어의 민족적 특성을 보존하고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표준어》라는 말은

34) "김일성 : 조선어를 발전시키기 위한 몇가지 문제—언어학자들과 하신 담화, 1964년 1월 3일" 「문화어학습」 1968년 2호, pp.1~7.

그러면서 '단어형태를 어떻게 표시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서도 '단어형태를 고정시키는 문제는 아마 남북이 통일된 다음에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라고 그 留保를 지시하고 있다.

다른 말로 바꾸어야 하겠습니다. 《표준어》라고 하면 마치도 서울말을 표준하는 것으로 그릇되게 이해될 수 있으므로 그대로 쓸 필요가 없습니다. 사회주의를 건설하고 있는 우리가 혁명의 수도인 평양말을 기준으로 하여 발전시킨 우리말을 표준어라고 하는 것보다 다른 이름으로 부르는 것이 옳습니다. 《문화어》란 말도 그리 좋은 것은 못 되지만 그래도 그렇게 고쳐 쓰는 것이 낫습니다.’³⁵⁾

1933년 朝鮮語學會가 制定發表한 ‘한글마춤법통일안’의 規定에 근거하여 南과 北이 한가지로 써 온 ‘표준어’³⁶⁾는 위와 같은 北의 獨善의 離脫 宣言으로 해서 分斷・縮少된다. 그리하여 한 民族의 언어가 그 자체의 문제와는 상관없는 外的인 尤因으로 犧牲되어 두개의 言語圈으로 허리가 잘리는 또 한번의 民族分斷을 가져 왔다. 비록 政治, 地理的 分斷의 현실이 있지만, 한가닥 民族共同體로서의 命脈이 하나의 ‘표준어’에 寄託하여 말하고 듣고 생각할 수 있어, 그나마 다행으로 간직했던 것인데, 그것을 끊고만 것이다. 그리하여 ‘그리 좋은 것은 못 된다’고 한 ‘문화어’라는 이름의 變種語를 낳았으니, 이로써 言語的 分斷의 시대가 시작된다.³⁷⁾

여기에 이르게 된 까닭이 言語에 있지 않음은 贅言을 뒀치 않는다. 그것이 內外的 政治理念的 情勢變化와 統一의 名分論으로 糊塗하고 있던 政策의 모순에 밀려 한 民族의 特質이라고 서슴없이 말해 온 언어까지 分斷한 것이니, 그 實相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그 裏面的 움직임을 살펴야 할 일이나, 그것은 本稿의 領域 밖의 일이거나 앞에서 검토한 北韓에서의 정치이념적 이데올로기의 轉移過程에 비추어 보는 것만으로도 그와 相應

35) “朝鮮語의 民族의 特性을 옳게 살려나갈 데 대하여—言語學者들과 한 談話, 1966년 5월 14일” 『北韓言語政策資料集』 極東問題研究所, 1973, pp. 21~22.

36) 總論, 二에서 ‘표준말은 大體로 現在中流社會에서 쓰는 서울말로 한다’라 規定.

37) 이 언어 분단의 事變을 일으킨 당사자의 視角에서 흥기문은 5.14 교시를 다음과 같이 規定했다. ‘1966년은 언어의 민족적 特性을 살리는 것이 현시기 민족어 발전의 合법적적 方向이라는 것을 선언함으로써 언어의 자주적 발전 역사에서 위대한 전환의 해로 기록되었다.’ “주체의 언어강령을 실현하는 것은 민족어 발전의 확고한 담보” 『문화어학습』 1986년 2호, p. 3.

하여 並行된 事變³⁸⁾이라는 것은 明若觀火하다. 따라서 ‘문화어’를 언어적 측면의 문제로만 이해한다는 것은 핵심을 벗어난 皮相에 지나지 않는다. 그들이 이른바 言語革命의 目的意識的 課業을 다그쳐 추진하는 對象의 典型을 확립한다는 의미를 가진 ‘문화어’는 그 스스로는 存在의 主體가 될 수 없고, 어디까지나 道具論的인 手段일 뿐이다.

文化語의 虛構性

문화어란 어떠한 언어이며, 그 특성은 무엇인지, ‘김일성종합대학 조선어학강좌’가 「문화어학습」에서 規定하고 있는 內容을 중심으로 하여 살펴 보자. 우선 資料的 實證性을 갖기 위해 그 일단을 轉記한다. ‘문화어는 우리당과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직접적인 지도밑에 조선혁명기지—공화국북반부에서 가꾸어지고 다듬어진 가장 주체적이고 인민적인 언어이다. 문화어는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주체사상이 언어분야에서 빛나게 구현된, 우리시대 민족어의 가장 높은 형태이며 주체적인 사회주의 민족어의 전형이다.’³⁹⁾ 물론 이것은 5.14 교시를 扮裝展開한 것에 지나지 않으며, 그것은 1) 문화어는 평양말을 기준으로 한다는 것과, 2) 문화어를 南北共通의 표준어(民族語의 典型)로 한다는 것으로 集約된다.

한편 그것은 김일성의 주체사상에 입각해서 만들어진 것일 뿐 아니라 더 나아가 주체사상을 펴 나가는 데 강력한 武器로서의 社會的 機能을 가진 것이라야 한다는 것이다. 결국 그들 스스로 폭로하고 있듯이 문화어는 ‘다른 모든 문제와 마찬가지로 언어문제도 주체적으로 해결하는 방침’의 所産이며, ‘해방후 조성된 정세와……우리당 혁명기지로선을 언어분야에서 구현한’ 것으로서 언어본질의 독자적 自律性은 고사하고 言語外的인 부당

38) 홍기문이 上揭論文에서 ‘고전적 로작(*필자 주, 5.14 교시)의 발표는 우리 혁명과 민족어의 발전에서 커다란 의의를 가지는 사변이었다’고 規定하였다. 「문화어학습」1986년 2호, p.3.

39) “혁명의 붉은 수도 평양에서 이루어진 우리의 문화어” 「문화어학습」1968년 창간호, p.14.

한 간섭과 통제에 복종하여 의도하는 데 따라 만들어진 被造物임을 立證하고도 남는다.

그리고 그들이 말하는 평양은 ‘혁명의 붉은 수도, 사회주의 수도, 노동계급의 수도……우리나라의 정치, 경제, 문화의 중심지’라는 것이고, 그 말은 ‘전투적이고 박력있는 씩씩한 어조, 계급적 내용을 담은 사회정치적 슬어와 표현,……혁명하는 조선인민의 사상 감정을 잘 나타낼 수 있는 사회주의 혁명과 건설시기의 민족어’라는 것이다. 그리하여 문화어-평양말은 이러한 점에서 서울말과 질적으로 다르며, ‘조선인민의 진정한 모국어는……우리의 문화어’라 하면서, 마침내는 ‘문화어는 앞으로 통일된 조국—남북조선에서 4천만 조선인민의 단일한 민족어’⁴⁰⁾가 되어야 한다는 데 歸結시켰다. 이러한 虛構를 掩蔽하기 위하여 ‘서울말은 한자말과 외래어를 빼버리면 우리말로서는 토박에 남지 않는 형편이다. 구조적 요소가 온통 외국말의 말마디들로 뒤바뀔으로써 노동자농민들은 듣고도 무슨 소리를 하는지 도무지 알 수 없는 그런 말들이 바로 서울말’이며, ‘미제가 강요한 민족어말살정책이 빚어낸 남조선의 색어빠진 언어생활과 언어모습을 집중적으로 반영하는 퇴화된 말’⁴¹⁾이라고 臆說을 부릴 뿐만 아니라, ‘만일 민족어 건설에서 그 민족어의 모체로 되는 말을 계승하여 그것을 끝까지 표준으로 하지 않고 어떤 다른 지방의 말을 표준으로 내세울 때에는 그 민족어는 자기발전에서 우여곡절을 겪게 되며 사람들의 언어생활도 혼란을 면할 수 없게 된다’라며, ‘민족어의 원줄기말인 평양말’ 云云, 우리 국어의 歷史的 正統性까지도 捏造歪曲⁴²⁾하는 일까지 서슴치 않는다.

40) 上揭論文 pp. 16~17.

41) ‘강창조: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 밝히신 평양말이 표준이 되고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사상은 사회주의적 민족어 건설의 합법적적 요구를 반영한 혁명적인 사상」『문화어학습』1986년 2호, p. 13.

42) 홍기문은 “위대한 수령님은 우리말의 주체적 발전의 신기원을 열어 놓으시고 고귀한 역사적 뿌리를 마련하여 주신 민족의 태양이시다”라는 題下의 글에서 두 개의 ‘문화어의 뿌리’를 들고 있는데 ‘함일대전의 불길 속에서 위대한 수령님께서 몸소 창조하시여 보여 주신 혁명적 문풍은 우리말 문화어의 역사적 뿌리인 혁명적 언어의 모체로서 우리당과 인민이 대를 이어 영원히 따라배워

이와같이 문화어는 국어의 歷史의 正統性을 이어받지 못한 變種의 한 地域語를 母體로 하여 非正常的으로 孕胎되었고, 5.14 교시의 事變的인 충격 속에서 胎動, 出產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그것이 갓 태어났을 때의 모습도 제대로의 모습이 아니었거니와 앞으로 어떠한 모양으로 자라서 어떠한 狂亂의 破格을 저지르지 알 수 없는 두려운 불서를 당초부터 가진 것이었다.

Ⅲ. 語彙整理와 단어 만들기

김일성은 1.3 교시에서 이미 ‘문화어’造成에 대비한 일련의 조치를 취하는데, ‘지금단계에서는 말을 정리하는 것이 중요한 과업’이라면서 그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며, 많은 조사연구가 필요하고, 또한 강한 통제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그리고 그 임무를 어문학연구소가 맡아 수행토록한다. 즉, 김일성은 ‘어문학연구소가 우리 말을 정리하며 새말을 만들어내는 것을 통제하는 기관으로 되어야 합니다.’⁴³⁾라고 했다.

여기서 우리는 ‘강한 통제’라는 것에 格別한 주의를 기우려야 할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 原論的으로 보아 政府次元의 機關이 恣意的으로 말을 정리하고 새 말을 만들어 내며 또한 그것을 통제한다는 것 자체가 反言語的인 無謀한 것이 되는 것이지만, 그러한 原理를 가리고 따지기에 앞서 막무가내로 그들은 능히 언어의 自律의 秩序를 유린⁴⁴⁾할 수 있는 傲慢性을

야 할 가장 고귀한 혁명적 재부이다’라고 한 것이 그 하나요, ‘수령님의 혁명적 문풍을 귀감으로 삼고 수령님의 주체적 언어사상을 관철하기 위한 성스러운 투쟁과정에 이룩된 혁명적 언어는 우리말 문화어의 모체이며, 고귀한 역사적 뿌리로서 사회주의 민족어 건설에서 우리 인민이 영원히 계승 발전시켜야 할 또 하나의 가장 귀중한 혁명적 재부이다’라 한 것이 다른 하나다. 「문화어학습」 1977년 2호, p. 10.

- 43) “김일성 : 조선어를 발전시키기 위한 몇 가지 문제—언어학자들과 하신 담화. 1964년 1월 3일” 「문화어학습」 1968년 2호, p. 6.
- 44) ‘...지금까지 언어발전문제를 언어자체의 《내적 발전법》의 테두리에서만 고찰하던 언어이론에 중구부를 찍고 혁명과 건설의 요구에 맞게 현시대 로동계급의 지향에 맞게 언어를 목적의식적으로 발전시키는 것이 합법칙적이라는 높이이로 언어이론을 발전시킨 탁월한 사상...’ 前揭文 p. 23.

민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그 힘으로 밀어붙일 것이 확실하므로 그 ‘통제’가 물고 울 결과가 우리말의 어떠한 면에 어떻게 작용하여 어떠한 모습을 빚어낼런지 모르기 때문이다. 이처럼 無所不爲의 威脅的인 힘을 過信하는 이 ‘통제’문제를 언어분야의 교시에서 明示的으로 擧論하게 된 것은 이것이 처음이다.⁴⁵⁾ 마지막 단계의 강한 의지가 담긴 이 조치는 결국 ‘문화어’ 產出의 의지의 表出인 동시에 한편으로는 그 동안 추진해온 일련의 말다듬기운동에서 드러난 잘못이나, 부진한 성과에 대한 批判에 따른 것이다. 사실 이 두 가지 문제는 따로 떨어진 별도의 일이 아니라, 한 범주에 드는 성질의 것이다.

그리고 위의 교시내용은 이 통제의 대상으로 ‘우리말을 정리하는 일’과 ‘새말을 만들어내는 일’, 즉 語彙整理와 새 단어의 造成이라는 두 가지 측면을 제시했다. 이 가운데 語彙整理는 훨씬 앞선 시기부터 推進督勵해 온 사업이지만, 다른 하나의 新語造成문제는 새로운 단계에 접어든 이 시기의 강력한 요구에 부응하여 제기된 可히 어학혁명적인 한 課題라 할만한 문제다.

單語體系의 單一化

語彙整理의 名分으로, 우리말의 단어체계가 고유어와 외래적인 단어의 두 체계를 그대로 유지하거나, 또 그런 것으로 만들 것이 아니라 고유어에 근거한 하나의 체계가 되도록 한다는 것을 내건다. 그것은 김일성이 1.3 교시에서 ‘단어체계를 고유어와 한자어의 두 체계로하여 복잡하게 만

45) 이후 이것이 어떤 式으로 反映되어 실시되는가를 알리는 한 근거로 다음을 제시한다. ‘...우리는 수령님께서 밝혀주신 방향에 따라 누구나 다 마음대로 말을 만들어 내지도 못하게 하고, 어렵고 힘든 말을 망탕 쓰지도 못하게 강한 통제사업을 하여야 한다. 특히 수령님께서 밝혀주신 모든 기관들과 일꾼들은 새말을 사회과학원 언어연구소와의 협의를 거쳐서만 만들어 쓰며, 또 언어학연구소는 우리말을 망탕 쓰는 현상들을 강하게 통제하는 제도를 철저히 지켜 나가야 한다’ “엄병섭 : 언어혁명을 힘있게 벌릴 데 대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사상” 「문화어학습」 1975년 3호, p. 23.

들 필요가 없습니다. 단어는 우리 고유어에 근거하여 하나의 체계로 만들어야 합니다'라고 한 데 기초한다고 한다. 평양말로써 '민족어의 전형'을 만들어 내기 위해서는 언어의 기본단위인 단어들을 정리해야 함은 차라리 당연한 일일런지 모르며, 그리하여 그들은 '조선어의 어휘정리하는 것은 현시기 우리사회의 절실한 요구이며 사회주의하에서 조선어발달의 합법칙적인 과정에 이루어지는 필연적인 사업'⁴⁶⁾이라고 했다. 그것은 당초 한자사용을 전면적으로 폐지하는 데 따라 불가피하게 語彙交替現象이 擴散되었으며, 체제의 뿌리를 鞏固히 확보하는 일련의 정책으로 말을 옳바르게 쓰는 氣風(인민적인 쉬운 방향)을 세운다면서 말다듬기운동을 전개, 그 결과로 消極적인 漢字語는 점차 縮少退化되는 반면에 고유어를 다듬어 쓰는 기풍이 거세게 몰아쳤던 것도 사실이다. 그것은 북한의 轉變한 현실에 부합하지 않는 국어 어휘의 實態와 앞으로도 계속 달라지려는 현실의 강한 요구와의 모순이 深化되는 상황에서 그 모순을 푸는 방향으로 이해된다. 그것을 그들은 국어어휘발달의 합법칙성에 의거하면서 균중적 운동으로 전 인민적 운동으로 풀어나간다는 名分을 내세웠던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否定的인 것들을 정리하는 한편 肯定的인 것들을 積極化해야 하는 두 가지를 동시에 이루어 나가야 하는 어려움도 있다. 특히 언어는 역사성을 가진 것이며, 결코 人工的으로 造作하여 대중에게 강요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 본질적인 원리와의 충돌을 어떻게 克服할 수 있을지 그 귀추가 낙관할 수 없는 일인 것도 사실이다. 겉으로는 거침없는 豪言으로 기세를 提高하지만 적지 않는 우려의 視角도 없지 않았을 것이다. 가령, 리근영이 '그러므로 우리의 사업은 그 발달의 합법칙성에 튼튼히 립각하여야 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사업의 단계성문제도 고려에 두어야 한다'⁴⁷⁾고 警告하고 있는 것은 示唆하는 바가 많거니와 연구가들이 理論-實踐的으로 해결해야 할 허다한 문제들을 안고 있다는 것도 지적됐다. 아무튼 이러한

46) "조선언어학자들의 당면과업" 「조선어학」 1964년 4호, p. 2.

47) "리근영 : 조선어 어휘를 정리하며, 더 발전시키는 데서 나서는 몇가지 문제들" 「조선어학」 1964년 4호, p. 33.

우려에도 불구하고 일련의 사업은 강행되며 우선 漢字語문제가 중심적 정리대상으로 浮上하는데 국어에서 漢字語가 가지는 특성으로 보아 당연한 일이었다.

漢字語의 語彙整理

漢字語는 국어의 어휘구성과 관계를 가진지가 오래인 中國 書寫語의 語彙들이며, 또 그런 식으로 우리 나라에서 만들어진 단어들이다. 초기단계에서 그것들은 文語에서 쓰이었고 오랜 시일을 두고 쓰이는 과정에서 그 일부가 대중적인 口語에 들어간 것이다. 그리고 漢字語의 특징은 漢字로 이루어진 단어가 漢字語인만큼 우선은 漢字를 보고서야 이해되는 단어였으며 그런 과정에서 각 漢字音의 복합체가 전체로서 사람들의 귀에 익었을 때라야 그 漢字를 떠나서도 이해되는 단어가 된다. 결국 한자어는 많은 것들이 우리에게는 文字的, 文語的, 視覺的인 단어이지, 口語的, 音聲的, 聽覺的인 단어로 되어 있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漢字語의 많은 것들은 역시 일반대중에게는 어렵고, 생소한 것으로 남아 있게 마련이다. 이와 같이 대중에게 침투되기 어려운 한자어지만, 그것이 국어의 語彙構成에 작용해 온 것이 오래 되었고 간절한 語形으로 복잡한 의미를 集約적으로 담을 수 있는 長點이 있어—이로 인해 同音異義語를 많이 만들어 혼란이 오는 수도 있으나—국어의 어휘조성에 널리 이용되어 대중의 언어생활까지 깊이 침투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사정은 지난날의 일이고 지금은 한자를 문자로서 이용하지 않음으로써 한자의식의 바탕을 잃은 조건에서 한자어는 제자리를 지탱하기 어려운 단어가 되고 말았다. 따라서 한자사용을 폐지한 조치는 한자어 자체에 대해서도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었으니, 눈으로 보고서만 알 수 있는 많은 漢字語가 단어로서의 資質을 잃게 되어 언어생활에 심한 정체와 혼선을 가져 오게 하였다. 이것은 漢字語와 관련된 중요한 轉變의 契機임에 틀림없다. 그리하여 일률적으로 한자어라고 하는 것도 그것이 국어의 語彙構

에서 작용하는 관계는 같지 않아서, 1) 일부계층에서 쓰였을 뿐 국어의 어휘구성 속에 들어 올 수 없는 것, 2) 대중에게 침투되어서 고유어에 準하게 된 것, 3) 漢字語의 특성을 잃고 어휘론적 특성이 고유어화된 것으로의 구분이 확실해진다. 그리고 한자어가 더 확대할 조건은 적어지면서 그것을 가로막는 조건은 커져가는 상황에서 漢字語를 새롭게 만들어 낼 근거도 없어졌고, 기존의 한자어에서는 쉬운 것과 어려운 것의 분화가 심해졌다. 이 두 指向은 결국 쉬운 한자어와 어려운 한자어의 나아갈 길을 갈라놓는다. 한자어가 처한 이러한 실정으로 해서 앞으로 쓸 수 있는 것을 가려서 그것은 留保하고, 쓸 수 없는 것은 정리해 버리며 앞으로 새 단어는 될수록 고유한 語根으로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는 指針이 제시되었던 것이다.

이런 방향에서 그들은 남겨 둘 한자어와 정리되어야 할 한자어를 크게 두 類型으로 나누는데, 첫째로 한자어 스스로가 국어어휘구성에 남을 수 없는 결함이 있는 것, 둘째로 다른 同意語와의 경쟁에서 살아남지 못하게 되는 것이 그것이다.

첫째 부류의 한자어는 日本式 漢字語를 비롯하여 造語法이 서툰 것등으로서 국어어휘가 될 수 없고, 漢字語지만 거의 쓰이지 않거나 앞으로 쓰일 가능성도 없으니 처리되어 마땅하다는 것이다. 또한 낱아서 쓰이지 않는 것, 즉 古語나 命名하는 對象이 그들의 생활과 멀어졌기 때문에 잘 쓰이지 않는 것, 즉 時代語는 현대국어어휘로 보지 않는다는 것이다.

한자어는 많은 것이 고유어와 同意的 내지 類意的 관계에 있다. 한자어와 고유어 사이의 이 문제는 국어에서 하나의 독특한 특성을 가진 것이 된다. 고유어 가운데는 동의적 내지는 유의적 한자어가 들어와도 제자리를 유지하는 것이 있는가 하면 오히려 한자어가 더 잘 침투되어 있는 것도 있는 바 이것은 많은 단어의 복잡한 변천과정에서 볼 때 있을 수 있는 일이다. 이러한 한자어를 동의어적 관점에서 정리하려 할 때 적지 않은 어려움이 예상된다. 첫째로, 어떤 정도의 것을 동의어로 보고 한자어를 정리하겠는가 하는 문제가 매우 중요하게 떠오른다. 다음 둘째로는 同一文

脈에서 交替할 수 있는 동의어문제가 고려될 문제다. 실제로 있어 어려운 한자어는 文脈의 의미를 바꾸지 않으면서 표현을 바꿀 수 있는 경우가 많다. 가령 ‘造成하다, 製作하다, 製造하다, 作成하다’ 대신으로 ‘만들다’를 써도 되는 경우가 많다. 그렇다면 ‘만들다’만 살리고 ‘造成하다, 製作하다...’ 등을 없애버릴 수 있겠는가. 그럴 수는 없으니, 그 까닭은 ‘만들다’와 ‘造成하다, 製作하다...’는 그 基本意味가 완전히 일치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것은 種概念의 단어와 類概念의 단어 사이의 문제이며, 단어의 多樣性중의 한 의미가 다른 단어와 同意的 관계에 있다 해도 그 어느 한 단어를 없앨 수는 없다. 가령 ‘머리’의 多義的 意味 중의 하나가 ‘頭惱’라 하여 ‘頭惱’를 없앨 수 없으며 더구나 ‘머리’를 없앨 수는 없다. 다음 셋째로는 意味는 같지만 平易性이 다르며 그것이 대중에게 침투된 정도가 다를 때의 문제가 제기된다. 이 경우 두 同意語 중 침투된 정도가 커서 이해가 쉬운 것을 擇한다고 한다. 즉 두 단어 사이의 相關關係가 크게 작용하는 것으로서, 어째서 ‘桑田, 石橋’는 ‘뽕밭, 돌다리’를 취하고, ‘三角形, 學校’는 ‘세모꼴, 배움집’으로 되지 않는가 하는 것은 이 相關關係의 차이 때문으로 설명한다. 그러나 문제는 그 침투의 정도를 어떻게 測定하느냐는 것이고, 객관적 기준을 세우기란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니다. 이 관계는 한자어와 고유어 간에만 있는 것은 아니며, 한자어와 한자어 사이에도 있을 수 있다. ‘慈堂’과 ‘萱堂’에서 두게 된다면 앞의 것이 될 것이라는 것이다.

다음으로 語彙整理는 국어를 오늘날의 현실적 요구에 맞게 발달시키는 방향으로 추진해야 하는 문제가 제기되었다. 현실의 요구로 보아 국어의 語彙는 더욱 풍부해져야 하고 표현성은 치밀해져야 하는 바, 그러기 위하여 ‘있는 것을 찾아 쓰고, 없는 것은 만들어 쓴다’는 방침에서 어휘와 단어의 의미를 발달시켜야겠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대중들의 언어상식을 높이며, 특히 어휘에 대한 지식, 단어의 의미에 대한 지식, 단어만들기의 지식을 한층 북돋우는 일이 필요한 바, 그것을 잘 활용함으로써 어휘발달을 밀어 움직일 수 있다고 한다. 특히 消極化된 고유어휘 가운데서 제 빛을 보

지 못하고 있는 것들을 많이 습득하는 문제를 강조한다. 가령, '아기자기하다, 아둔하다, 아둥그러지다, 아갈잡이(소리지르지 못하게 입을 형질 기타로 틀어막는 일), 아롱지다, 아름차다, 아뒷답다' 등을 발굴하여 적극적으로 써 나가야겠다는 것이다. 즉 부당하게 消極화된 단어들을 찾아서 본래의 자리에 되돌려 활용함으로써 어휘의 풍부화를 가져 오게 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우리말 속에 오래 전부터 있으나 파묻힌 것을 積極的인 어휘로 만들자는 것으로서, 既往의 언어현실에 널리 쓰이던 것이라도 지금 그것이 쓸모가 없거나 몰라도 좋은 것은 정리해 버려야 한다는 것과는 서로 상충하는 두 方向의 일 중 하나이며, 당시의 語彙整理는 이 두 方向의 일을 동시에 이루어 나가야 하는 一見 모순된 일이었다. 물론 이 상반되는 두 方向의 작용을 받는 對象은 각각 그 性格이 다르기는 하다.

固有語根에 기초한 단어만들기

'있는 것을 찾아 쓰는' 방향으로 語彙를 擴張하는 것 못지않게 固有語根을 기초로 하는 단어만들기가 주요과제로 제기되었다.⁴⁸⁾ 고유어근은 漢字보다 대중적이며 알기 쉽고 同音異義的인 관계가 적으므로 뜻의 혼돈도 완화된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방향에서 단어를 만들면 쉽게 친숙하게 되고 빨리 침투확산될 것이라는 것이다. 이것은 일부 그 正當性이 인정되기도 하나, 그들이 상투적으로 封建殘滓를 없애고 外勢를 배격하여 우리말 어휘를 주체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남은 漢字語를 정리해야 한다면 그 것들을 語彙構成에서 빼 버리고 빈 자리를 고유어근에 의한 단어만들기로 메꾼다는 것은 그 發想부터가 非言語的일 뿐만 아니라, 감자기, 일시에, 目的指向的인 干涉아래 많은 단어들이 만들어지고 통제된다고 할 때 또 하나의 生硬하고 이상한 變種語를 가지게 됨으로써 傳統的인 국어의 語彙構

48) 이에 대한 김일성의 교시는 이렇다. '과학과 기술이 발전하고 사회가 전진하는 데 따라 우리말의 어휘도 더 늘어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새 단어도 많이 만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새로 나오는 말들은 우리말 어근에 따라 만드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야 합니다. 「김일성저작선집」, 4권 p.6.

成을 파괴하는 결과가 예상되기 때문에 우려하게 된다. 아무튼 그들은 엄청난 需要에 밀리는 供給手段을 考察해야 했고, 가장 손쉬운 방법으로 많은 것을 만들 수 있는 合成法에 의존했던 바, 그들이 단어만들기를 통해 造成한 것의 대부분이 合成語로 된 것도 우연한 일이 아니다. 오랜 동안 을 두고 몇개의 절실한 새 말을 補充하는 정도의 자연스러운 발달의 경우는 意味論的인 造語나 音素·形態論的인 單語生成이 圓滑히 이루어져 이것들에게 의존되는 수도 많다. 그러나 北韓의 言語現實은 전적으로 言語外的 要因이 크게 작용하여 일어난 語彙構成體系의 轉變이었던 관계로 그런 상황에서는 意味論 내지는 音素·形態論的인 單語生成의 手法으로는 그 需要를 감당할 수 없었던 것도 사실이다.

한편 단어만들기와 관련하여 중요하게 제기된 문제는 專門的 學術用語의 문제였다. 그것은 과학, 기술, 경제, 문화등의 변화와 함께 수많은 전문용어의 變造가 필요했고 그것에 對應하려면 부득이 새 단어를 만들어야 하는데 어떠한 手法을 援用하느냐 하는 것은 單語體系를 單一하게 만든다는 語彙整理의 指針과 밀접히 연결되는 문제다. 따라서 그들은 이미 대중 속에 잘 알려진 단어를 漢字語라하여 무조건 排除하면서 어색하고 생소한 새 단어를 만들었으며, 지나치게 概念을 설명하는 論理性만 생각하고 대중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긴 단어를 만들어 내는 현상이 벌어졌다.⁴⁹⁾ 단

49) 이에 대한 구체적인 예를 일일이 들 수는 없다. 한 두 가지만 들어 둔다. 생물학 용어에 '裂果'가 있다. 이것을 '열린 열매'로 다듬자는 문제인데 이것은 이 말과 상대되는 '閉果'를 '닫힌 열매로' 다듬는 조건에서 착을 이루는 점에서는 좋지만, '열매가 열린다'라고 하는 말을 많이 쓰는 상황에서 '열린 열매'라면 '식물에 열려 있는 열매'라고 알기 쉽다. 그래서 '터진 열매', '벌린 열매'의 의견도 있으나, 그렇게 하면, 열매의 성질을 나타내는 것이기보다는 어떤 다른 조건으로 터졌거나 벌렸거나 한 열매로 알 수 있기 때문에 그 열매의 성질이라는 것을 밝히자면 '터지는 열매' 또는 '벌리는 열매'로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와는 달리 '병을 열매'로 다듬어지게 되는데, 그것은 '벌다, 벌이지다'와 같은 뜻을 가진 '병을다'라는 말을 살려 쓰는 것이 다른 말과의 혼란도 없어 좋다는 것이다.

다음은 '人工榮養'의 문제로서, 어머니의 젖만 먹여서 기르는 '母乳榮養'과 암죽이나 우유같은 것으로만 기르는 '人工榮養', 그리고 이 두 가지를 섞어서 하는 '混合榮養'의 한 가지다. '母乳榮養'은 '어머니 젖영양', '混合榮

어란 그것이 命名하는 사물의 모든 標識이 語根을 통해서 다 나타나야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 대상물의 일부특징만으로도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다. 결국 이러한 단어만들기가 바람직한 결과를 가져 올 리가 없거니와 고유어로 만들었다는 것일 뿐 전문용어의 특성에 맞는 단어가 되지 못하여 산만하고 조잡하여 혼란만 더 했다. 그것은 마땅히 普遍性을 가진 단어만들기에 따랐어야 했고, 그러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接頭辭나 接尾辭를 활용한 派生法을 많이 導入했어야 옳았다.

語集整理의 목표가 하나의 단어체계가 되도록 하는 데 있기 때문에 새로 만드는 단어는 漢字語를 排除한 것이라야 함은 물론 外來語로 된 것일 수도 없다. 새로 만들어 쓰는 外來語란 드물지만 새로 들어 올 수 있는 外來語는 적지 않으므로 이 문제도 語集整理가 克服해야 할 局面이다. 이에 대해 김일성은 ‘외래어도 정리해야 하겠습니까. …물론 외래어를 다 없앨 수는 없습니다. 외래어를 어느 정도 쓰는 것은 피할 수 없으며, 얼마간은 받아 들여야 합니다.’⁵⁰⁾라고 하나, 그 후 5.14 교시에서는 ‘…새로 들어오는 외래어들은 우리말로 제때에 고치도록 하여야 합니다. …외래어도 처음 들어올 때 자기나라 말로 고치면 됩니다.’⁵¹⁾고 積極對策을 지시하게 된다. 이와같은 변화는 정상적인 과정에서 이루어졌다기보다 自家撞着的 갈등이 表出한 하나의 斷面이다. 만약 얼마간이라 하더라도 외래어를 受容하는 원칙을 그대로 둔다고 할 때 단어체계의 단일화원칙에 위배하며, 결국 事大의 對象만이 바뀐 새로운 事大를 낳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대책

‘養’은 ‘쉬운 영양’으로 다듬으며, ‘人工榮養’은 ‘암죽 영양’으로 하자는 데 대하여 앞의 둘은 그렇다 하고, ‘암죽영양’은 어찌 암죽만이 해당되느냐면서 ‘암젓영양’으로 하자는 의견이 나오나 역시 ‘젓’이 어머니 젓으로도 생각되기 때문에 ‘混合榮養’으로 볼 수도 있으나, 이 말은 ‘어머니 젓영양’, ‘쉬운 영양’의 系列속에 있기 때문에 어머니젓이 아닌 다른 젓이라는 것으로 알게 될 것이므로 ‘암젓영양’으로 한다는 것이다.

50) “김일성: 조선어를 발전시키기 위한 몇 가지 문제-언어학자들과 하신 담화. 1964년 1월 3일”, 『문화어학습』 1968년 2호, pp. 4~5.

51) “김일성: 朝鮮語의 民族의 特性을 옮겨 살려 나갈 데 對하여-言語學者들과 한 談話, 1966년 5월 14일” 『北韓言語政策資料集』 極東問題研究所, 1973, p. 20.

이 단순히 言語外的인 形式論理로만 본다면 지극히 合理的이고 妥當할런지 모르며, 道具의 機能論의 言語觀으로는 能히 해낼 수 있다할지 모르나, 그것은 言語의 屬性을 否定하는 無謀한 도전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이러한 言語의 事變을 치루고 있는 北韓의 국어는 構造的인 毀損을 입었고, 거기에 意識的이고 人工的인 變造語를 量産하여 侵透普及까지 統制하는 현실이고 보면 그 異質化의 水位를 憂慮치 않을 수 없다.

Ⅳ. 辭典編纂과 그 特徵

光復 후 1964년 1.3 교시에 이르는 사이에 북한에서 편찬간행된 사전은 「조선어소사전」(1955)과 「조선말사전」(1960~1962) 전 6 권이다.⁵²⁾ 1.3 교시는 사전편찬분야에도 매우 적극적이고 구체적으로 관여하는데, 그것은 당시의 언어문제에서 중요하게 제기되었던 일이 語彙整理였으며, 그것이 結集되는 것이 사전편찬인만큼 이 두가지 일의 상호관계는 사실상 떼어서 생각할 수 없다. 1.3 교시는 語彙整理와 대중들의 언어생활에 있어서의 사전의 역할, 당시로서 새로운 사전편찬의 필요성등에 대한 문제제기와 그 指針을 밝혔다. 그것은 이른바 主體性있는 사전으로 改編한다는 것이며, 다시 말해서, 革命에 직접 이바지하는 사전, 우리말의 主體性있는 변화에 이바지 하는 사전, 그리고 主體性있는 사전편찬이론을 세우는 데 이바지 하는 사전을 의미한다는 것이다. 그러기 위하여 새로운 사전편찬은 단어의 선택과 註釋의 문제에서 변화가 있어야 하는데 그것은 응당 語彙整理의 결과에 토대하여야 하는 바, 새로운 사전은 語彙를 整理하여 單語體系의 單一化를 이룩한 결과를 반영하는 것이 되는 동시에, 語彙整理의 결과를 더욱 굳히고 그것이 실지로 쓰이는 일을 統制하는 역할을 가진다고 한다. 뿐만 아니라 그것은 새로운 語彙體系에 收錄되는 단어들의 語彙·意

52) 이 두 사전의 성격에 대하여는 기왕의 논문에서 검토된 바 있다.

李承旭: “北韓의 國語研究와 言語政策” 「東亞研究」 第14輯, 1988, pp. 6~

味論的, 文法的 그리고 文體論的 特性을 밝힘으로써 그 단어들의 정확한 효과적인 活用을 보장하는 역할까지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만들어지는 사전은 앞으로 固有語語根으로 단어를 만들어 내는 데 있어 거기에 수록된 단어체계가 規範의 역할도 하게 될 것이라고 한다.

註釋辭典이 가지는 기능은 대체로 1) 語彙構成反映의 機能, 2) 言語規範化的 機能, 3) 認識-敎養의 機能으로 구분된다. 새 사전은 종래대로 이 세가지 機能을 가지게 되나, 1)과 2)에 內包되는 내용은 다름⁵³⁾ 뿐만 아니라 언어사용에서의 統制的 機能을 가지는 것이 이들 사전의 變革의인 特性이다. 註釋辭典의 普遍的인 屬性은 參考辭典의 性격을 띠는 것이 보통이지만, 그들이 계획하는 사전은 전혀 다른 統制辭典이며, 서로 대립되는 이 두 사전은 語彙收錄의 방식이나 이용목적에서도 크게 다르다. 이에 대하여 김수경은 다음과 같이 對比하고 있다.⁵⁴⁾

통제사전	참고사전
(1) 규범화된 현대표준어의 어휘를 체계로서 반영.	(1) 시간 공간의 제약없이 그 언어의 여러 층의 언어를 非體系的으로 반영.
(2) 일정한 시기의 사회집단의 단일한 언어의식에 그 기초를 둠.	(2) 일정한 시기의 사회집단의 단일한 언어의식에 그 기초를 두지 않음.
(3) 언어 사용을 규범화하고 통제하는데 복무. 모르는 단어의 뜻을 찾아 보도록 하는 이외에 일정한 단어를 사용할 수 있는가 없는가 하는 것을 알아 보는데	(3) 모르는 단어의 뜻을 찾아보도록 하는 데 전적으로 복무.

53) 그에 대해 김수경은 다음과 같이 規定한다. '새로 편찬할 사전이 갖추어야 할 성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이 된다.

1) 현대조선어 표준어의 어휘체계를 반영하되 단순한 객관주의적 반영이 아니라 우리말 어휘정리의 입장에서 반영하여야 한다. 2) 이 사전의 언어규범화적 성격은 단어의 의미, 문법문제 및 발음의 측면, 그리고 맞춤법, 띄어쓰기를 규범화하는 데서 나타나야 하나, 우선 무엇보다도 단어의 선택에서 나타나야 한다. 이것이 이 사전에 언어사용에서의 통제적 기능을 부여하게 되는 근거로 된다. 3) 또한 이 사전의 갖추어야 할 주석사전으로서의 인식-교양적 기능은 다시 말할 필요도 없다.' "김수경: 새로운 조선말사전 편찬을 위한 몇가지 문제" 「조선어학」 1965년 4호, p. 10.

54) 김수경: 上揭論文, p. 11.

또는 주어진 문맥에서 필요한 단어를
찾아내도록 하는데 복무.

그동안 밀고온 語彙整理와의 관계에서 볼 때, 이른바 ‘혁명에 직접복무할 사전을 편찬할 데 대한 당적 요구’라는 것으로 볼 때 參考辭典만으로는 그들의 意圖대로 국어를 變造할 힘이 없다. 특히 漢字폐지 후 漢字語系를 정리하여 單語體系를 單一化한 데서 생긴 混亂을 감당할 수 없게 됨으로써 統制辭典의 強制性을 끌어들이지 않을 수 없었다. 그리하여 이 사전은 그 統制機能으로 해서, 여기에 실린 단어들은 쓸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것은 쓸 수 없게 된다. 그 결과, 어느만큼의 혼란이나 副作用은 억지로나마 制壓할 수 있을지 모르나, 그 때문에 국어의 語彙構成은 극도로 萎縮될 것이 분명하고 언어생활이 硬塞되는 한편 南北間의 異質化를 한층 深化시키게 됐다.

사전의 성격은 여러가지 조건으로 규정되지만, 가장 핵심적인 조건은 收錄되는 語彙構成의 문제와 그 意味를 註釋하는 基準을 어디에 두느냐하는 것이다.

語彙收錄의 문제

1.3 교시에 準據한 사전의 語彙構成條件은 文化語의 語彙體系를 收錄해야 하는 일이다. 그러나 여기에는 여러가지 어려움이 뒤따른다. 변하는 어휘구성에서 어떤 時期의 어휘만을 區劃한다는 일, 年齡, 知識, 職業 또는 性別에 따라 다른 語彙構成을 일정한 시기의 사회집단의 단일한 言語意識에 토대하여 그 語彙體系를 규정짓는다는 것들은 매우 어렵다. 그렇다고 할 때 文化語의 語彙體系를 어떻게 확정하였는가 하는 문제는 北韓의 국어를 어떻게 變質시켰는가를 알리는 指標가 된다 하겠다.

‘평양을 중심으로 하고 평양말을 기준으로’한 ‘현대어’라고 하는 그 ‘현대’는 무엇을 말하는가? 그들이 말하는 ‘현대어의 어휘’란 ‘바로 오늘날

의 어휘'라는 것이다. 그리하여 이른바 '낡은 어휘'라 하여 言語的 遺産이나 傳統的 特質을 무참히 유린하며 時代語까지도 일반어휘에서 배제하고 만다. 이에 반하여 대중의 사상, 정치, 교양에 필요한 어휘라 하여 1930년대의 혁명전통교양자료라는 데 쓰인 어휘, 日帝때의 계급교양에 필요한 어휘따위는 문화어의 어휘체계에 포함시킴으로써 스스로 모순에 빠진다. 특히 南韓의 국어현실의 반영에 대하여 '이 사전은 남반부 어휘사전이 아니라 우리말 어휘체계 확정에 이바지하는 통제사전이기 때문에 남반부의 모든 어휘와 그 의미를 새로운 조선말사전에 수록될 어휘체계 안에 넣을 수는 없다'고 했다. 뿐만 아니라 '이 문제는 남반부를 해방하고 조국의 통일을 실현할 우리의 과업과 북반부에서 사회주의를 건설하고 있는 우리가 중심이 되어 조선어를 발달시켜야 할 과업을 옮겨 통일시켜 정확히 처리하여야 한다'⁵⁵⁾는 것이니, 可히 그들의 숨겨진 底意를 알만하다.

다음은 '조선어의 어휘'를 收錄한다 했는 데, '조선어의 어휘'와 '외래어의 어휘'의 限界設定의 문제다. 國語化된 外國語彙 즉 外來語彙, 漢字語彙와 그러지 못한 外國語彙, 外國漢字語彙를 區分해야 할 것이로되, 그 基準을 客觀化하기는 쉽지 않다. 그리고 문화어라 할 때 그것에 포함되는 어휘의 부류와 관련하는 문제도 있다. 즉 문화어와 방언, 문화어와 통용어 사이의 限界가 문제이며, 문화어의 어휘내부에서 기본어휘와 어휘구성과의 限界, 고유어휘와 漢字語彙, 外來語彙, 일반적 어휘와 文語體, 口語體의 語彙, 일반용어와 학술용어, 보통명사와 고유명사, 사회적 어휘와 개인적 어휘등의 限界문제가 바로 그러한 것이다. 이러한 문제에서 문화어 사전은 통제사전의 특수성에 따라 원칙적으로 方言, 通用語, 개인적 어휘, 그리고 고유명사의 收錄을 排除하게 된다.

單語註釋의 문제

문화어사전은 收錄語彙의 註釋에서 이른바 '黨性, 科學性, 人民性의 原

55) 김수경 : 上揭論文, p. 13.

則'에 따라 既往의 사전, 南韓의 사전들과는 質的으로 구별되는 특성을 가져야 할 요구 때문에 意味規定의 統制가 필요했다. 다시 말해서 단어를 物量的으로 規格化하여 統制할 뿐만 아니라 대중의 思考, 認識, 判斷 그리고 情緒 등 內面的 意識過程에까지 간섭하고 통제하여 그야말로 變態語의 形式-內容의 構成條件을 갖춰야 했다. 국어의 語彙構成을 歷史的, 地理的, 그리고 階層的으로 規制하는 것만도 언어의 普遍性을 넘어서 일인데, 더 나아가 단어의 意味規定에서 黨性, 과학성, 인민성의 원칙에 부합치 않는 것은 排除하여 意味의 規格化를 統制한다는 것이니 그것은 국어의 異質化 문제를 훨씬 넘어서 離脫이며 斷切이라 할 수 밖에 없다.

아무튼 그들은 단어의 註釋에서 黨的, 科學的 입장에서 정확한 주석을 하며 동시에 대중이 이해하기 쉽도록 인민적으로 한다면, 특히 단어의 意味構造分析은 現實性에 따라야 하므로, 가령 '당'이라 할 때 일반적으로 '조선로동당'을 가리키는데 사전에서 단지 일반적인 '당'의 의미만을 준 다든가, '혁명가요', '아동단' 등의 주석을 '혁명적인 가요', '아동들의 회조' 등으로 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1.3 교시, 5.14 교시가 새로운 사전편찬의 필요성과 방향을 指示한 이후 北韓에서는 사전에 收錄할 語彙構成의 單語體系와 그 註釋의 規格化가 促進되고 그것을 統制하기 위하여 사전이 편찬간행되었다. 1968년의 「현대조선말사전」, 1973년의 「조선문화어사전」 그리고 1981년의 「현대조선말사전(제2판)」이 그것들이다. 그러므로 이 사전들은 可히 文化語의 모든 特性을 結集한 것이라 할 수 있고, 따라서 면밀한 분석검토가 있어야 할 중요한 課題이나, 本稿는 이들의 문제를 제기하는 데 그치려 한다.

V. 結 語

이상에서 우리는 北韓의 文化語에 대한 여러가지 側面的 문제들을 가능한 한 구체적인 資料에 근거하여 實證的으로 接近하려 했거니와, 그리하

여 사실을 客觀的으로 파악함으로써 文化語의 實體가 무엇인가를 올바르게 認識하려는 데 努力했다.

그래야 하는 이유는 文化語라는 對象자체를 이해하기 위해서도 필요한 과정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은 현재의 우리 民族의 言語, 즉 국어 속에서 文化語를 어떠한 位相의 變種語로 規定해야 할 것인지, 그 특성을 檢證해내는 데 있어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작업이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文化語의 實體파악이 있는 연후라야 이것에 대처하여 강구될 方案도 설 수 있을 것이고, 또한 그것이 適正한 것이 될 것이다.

本稿는 우선 文化語形成의 여러가지 특성을 分析하고 記述하는 데 머물렀으며, 우리 民族의 言語의 特質이라는 次元에서 文化語의 位相을 어떻게 設定하고 또 그것에 대해 對應해야 할 方策까지는 깊이 있게 다루지 못하였다.

다음은 위에서의 論議를 概括하여 結語로 한다. 文化語는 言語發達의 普遍的인 原理에 기초를 두고 이루어진 自然言語가 아니다. 北韓은 일찍부터 言語를 이른바 마르크스-레닌주의의 언어이론이라 하여 機能論的인 言語觀에 입각한 道具의 手段으로 規定하면서 혁명과 건설에 적극적으로 복무하는 말과 글이 되도록 改造할 것을 促求해 온다. 그런 가운데서도 1964년 1월 3일의 김일성교시가 있기 전의 시기까지는, 그래도 그들의 規範語를 ‘한글마춤법통일안’(1933년 제정)에 規定된 ‘표준어’로 삼고 있었으니, 이것은 北韓 言語政策의 前半期를 特徵짓는 核心의 問題로서 이것이 求心力을 가지고 있는 한은 얼마간의 政治的 虛構性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 국어의 統一的 發展이나, 民族語의 特質을 固守한다는 名分이 正當性を 잃지 않고 있었다.

그런데 1964년의 1.3 교시를 轉換點으로 하여 1966년의 5.14 교시로 거듭되면서 서울을 중심으로 하는 ‘표준어’로부터의 離脫을 宣言하는 한편, 평양을 중심으로 하는 ‘文化語’를 그들의 規範語로 定立하게 됨으로써 우리말은 이미 既定事實처럼 되어버린 政治的, 地理的 分斷에 이어 마침내

는 言語의 分斷이라는 또 하나의 悲運을 맞는 對象이 되었다.

文化語의 定立은 물론 ‘표준어’로부터의 단순한 離脫이 아니다. 그렇기는커녕 한 걸음 더 나아가 ‘표준어’를 철저히 否定하는 바탕위에서 文化語는 우리 民族語의 典型이라는 것이다. 그럴진대 文化語의 登場은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닐 뿐만 아니라 단순한 言語의 문제도 아니며, 매우 暗示的인 政治的 意味의 一環으로 받아들여야 할 중대한 문제다. 이러한 轉移는 역시 그들의 이데올로기의 變質過程, 이른바 김일성의 주체사상의 형성과 같은 脈絡에서 強行되었다는 사실들이 확인된다.

결국 文化語는 국어의 역사적 正統性을 이어받지 못한 變異種의 한 地域語를 母體로 하여 非正常的으로 孕胎되었고, 5.14 교시의 事變的인 충격 속에서 胎動, 出產한 變態語다. 그렇기 때문에 文化語는 言語의 本質的 屬性으로 보아 自生, 自活能力이 전혀 없는 被造物의 성격을 벗어날 수 없으며, 그것을 유지하고 浸透시키기 위하여 社會과학원 언어학연구소로 하여금, 언어현실의 모든 부문에서 철저한 統制機能을 遂行토록 했던 것이다.

특히 語彙構成의 單語體系와 그 意味의 規格化를 固着시키고, 그것을 강력히 統制하기 위하여 일반 註釋辭典이 가지는 參考機能을 排除하고, 그 類例를 찾을 수 없는 특수한 統制機能이 부여된 註釋辭典을 편찬간행하기에 이르며, 그리하여 文化語는 言語外的인 他律의 規制에 의해 지배받는 언어가 될 수밖에 없었다.